

##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3월 2호

## ◆ 주요 동향

1. 다롄시(大连市), '빙상실크로드'와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  
大连市加快建设东北亚海洋中心城市, 对接冰上丝绸之路
2. 2020년 중국 연안해역 수질 안정 속 양호 추세  
2020年全国近岸海域水质稳中向好
3. 2021년 중국 전국 해양투기구역 리스트 발표  
2021年全国海洋倾倒地名录
4. 산둥 엔타이(烟台), 중국 해양경제 대도시 건설에 주력  
山东烟台精耕海洋 发力建设中国海洋经济大市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 기타 동향

5. '펀더우저(奋斗者)호' 심해 유인잠수정 인도  
“奋斗者”号全海深载人潜水器交付  
<http://www.nmdis.org.cn/c/2021-03-23/74269.shtml>
6. 산둥 엔타이(烟台), 중국 첫 해양유형 국가공원 신청  
山东烟台将启动申报全国第一个海洋类国家公园  
[https://mp.weixin.qq.com/s/sdRASISYYb9a\\_JFXllywoA](https://mp.weixin.qq.com/s/sdRASISYYb9a_JFXllywoA)
7. 창장삼각주 해양생태야외기지 학수위원회 설립  
长三角海洋生态野外站学术委员会成立  
<http://www.nmdis.org.cn/c/2021-03-23/74266.shtml>
8. 산둥 첫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 착공  
总投资54亿元! 山东首个海上风电示范项目开工仪式召开  
<https://mp.weixin.qq.com/s/5JkFUu0eTE8H34rWtZuCAQ>
9. 중국, 국제해저관리기구 이사회 B그룹 이사국 연임  
中国连任国际海底管理局理事会A组成员  
<http://www.nmdis.org.cn/c/2021-03-12/74121.shtml>
10. 중국, 가장 큰 해양종합과학조사선 건조  
国内最大海洋综合科学考察船即将问世  
<https://mp.weixin.qq.com/s/SKktzKc7WMMSe3kjfA-3Ug>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 다롄시, '빙상실크로드'와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

- 주후이(朱晖) 다롄해양대학교 문학·법학대학(文法学院) 부원장은 최근 다롄사회과학협동연구사업 과제를 통하여 다롄이 동북아 지역 일체화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음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협력은 중요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고, 북극항로의 개발과 '빙상실크로드'의 건설은 동북아 지역의 일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다롄은 동북아 지역의 일체화 발전에서 장점을 발휘하고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개방·상생·협력을 제창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하여 지역 간의 상호연통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진흥과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함
- 동북아 일체화 발전 추진에 관한 대책
  -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의 해양강국, '일대일로' 전략과 결합하여 해양중심도시 건설 기본방침과 정책을 확정 해야함. 한편으로 '실크로드' 북방회랑 전략을 이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 한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지역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관심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각국의 공동이익 사항에 관한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의료, 무역, 정보기술 등의 협력을 공동 추진함
  - 정책수립 차원에서 시범구 공동 건설 추진을 목표로 하여 '일대일로', '동북진흥' 등 국가전략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실현함. 다롄은 '일대일로'에서 동북아 국가와 연계하는 선도적인 시범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특히 정책, 금융, 정보, 인원, 물류 등 방면에서 지역 간의 상호연통을 촉진함. 이와 동시에 다롄과 주변국가 간의 기존 다분야 협력·협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책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선도적인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시범구의 공동 건설을 추진함
  - 운영 차원에서 '기술혁신+항로개발+인프라 건설+법적 리스크 예방'의 협력개발 모델을 모색하고, 도시권-도시군 및 산업군-산업클러스터의 협동개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협력 및 '빙상실크로드'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동북아 복합운송 센터, 법률연맹, 경제협력조직 구축
  - 첫째, 다롄을 중심으로 동북아 복합운송 센터를 구축함. 다롄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육·해·공 운송이 일체화되는 복합운송 시스템을 구축함
  - 둘째, 다롄을 중심으로 동북아 법률연맹을 구축함. 동북아 각국의 해양경제 협력 과정에서 법적 메커니즘의 미비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다롄은 국제무역, 국제투자, 해외금융, 해양관련 법적 문제,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법적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음
  - 셋째, 다롄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협력조직을 설립함. 다롄은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코로나 기간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의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과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함

(大连日报, 2021. 3. 15.)

<https://mp.weixin.qq.com/s/HBvJoShCdtsNYSjiv7ZzHQ>

## 2020년 중국 연안해역 수질 안정 속 양호 추세

■ 3월 2일,生态环境부는 「2020년 전국生态环境 품질 개황」을 발표하였는데, 중국 연안해역 수질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양호한 추세를 보였음

### ■ 중국 관할해역의 수질 상황

- 2020년 여름철 Ⅰ급 수질에 도달한 해역의 면적은 중국 관할해역의 96.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
- Ⅰ급 해수수질에 도달한 보하이(渤海), 황해(黄海), 동해와 남해의 해역면적은 각각 13,490km<sup>2</sup>, 25,360km<sup>2</sup>, 48,000km<sup>2</sup>, 8,080km<sup>2</sup>를 기록했음. 그 중에 보하이와 황해의 Ⅰ급 수질 면적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동해와 남해는 전년대비 감소했음
- Ⅳ등급 수질 해역은 주로 랴오둥완(辽东湾), 황허커우(黄河口), 장쑤(江苏) 연안, 창장커우(长江口), 항저우완(杭州湾), 저장(浙江) 연안, 주장커우(珠江口) 등 연안해역에 분포해 있음
- 여름철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난 해역 면적은 총 45,330km<sup>2</sup>이며, 그 가운데 부영양화가 경미 수준에 도달한 해역 면적은 20770km<sup>2</sup>, 중간 수준에 도달한 해역 면적은 9,450km<sup>2</sup>, 중도(重度) 수준에 도달한 해역 면적은 15,110km<sup>2</sup>임. 중도 부영양화 해역은 주로 랴오둥완, 황허커우, 장쑤 연안, 창장커우, 항저우완, 주장커우 등 연안해역에 분포해 있음

### ■ 중국 연안해역의 수질 전체적으로 안정 속 좋아진 추세 보임

- 우량(Ⅰ,Ⅱ급)수질의 면적 비중은 77.4%에 도달했고, 전년대비 0.8%p 증가했음. Ⅳ등급 수질 면적은 9.4%로 전년대비 2.3%p 감소했음
- 연해 11개 성(구, 시) 중에 랴오닝, 허베이, 텐진, 산둥, 저장, 푸젠, 광둥과 광시의 우량수질 비중은 증가했고, Ⅳ등급 수질 비중은 하락했음. 하이난의 우량수질 비중과 Ⅳ등급 수질 비중은 전년과 같은 수준에 있음. 그러나 장쑤의 우량수질 비중이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이온화방사선과 관련해서는 연안해역의 해수와 해양생물 중의 자연 방사성 핵종농도는 자연 수준(background level)이었고, 인공 방사성 핵종농도는 이상이 없음. 그 가운데 해수 중 인공 방사성 농도가 중국 「해수 수질기준」에서 규정된 한계치보다 많이 낮은 수준임

### ■ 기후변화에 있어 중국 연해 해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80년~2019년 기간 중국 연해 해수면이 연평균 3.4mm 상승했음. 2019년 중국 연해 해수면은 평년보다 72mm 높았으며, 2018년보다 조금 높아졌고, 1980년 이래 세번째로 높음. 2012년~2019년 중국 연해 해수면은 40년 이래의 최고치를 기록했음

(中国自然资源报, 2021. 3. 23.)

<http://www.nmdis.org.cn/c/2021-03-23/74272.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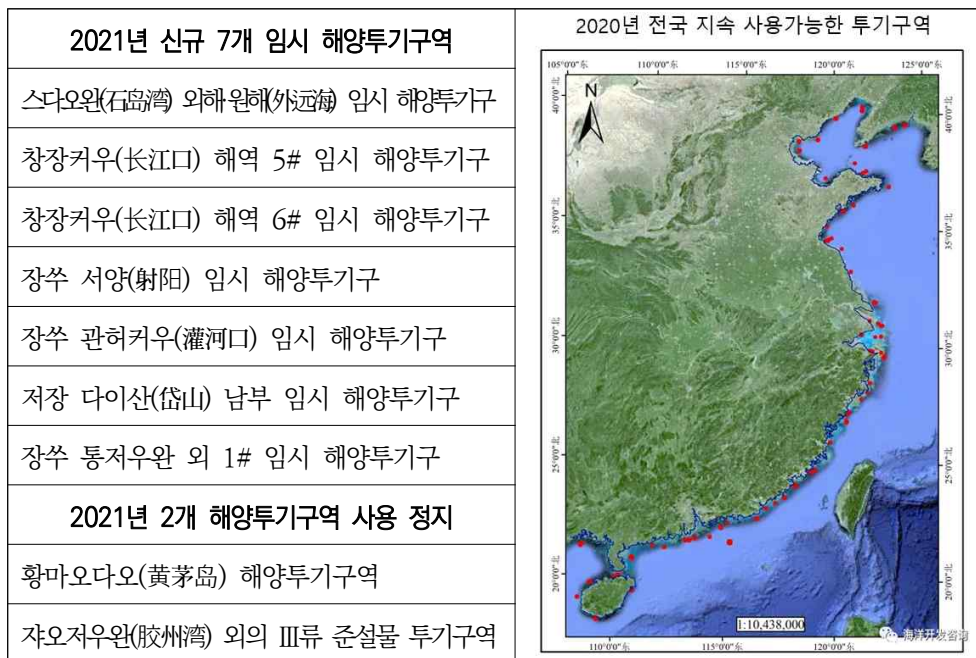
## 2021년 중국 전국 해양투기지역 리스트 발표

■ 2021년 3월 4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국범위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투기구역 리스트를 발표하였음

- 중국생태환경부는 2021년 전국에서 계속 사용가능한 해양투기구역은 총 79개를 선정했으며, 작년 대비 5개 임시 해양투기구역을 추가했음. 또한, 황마오다오(黄茅岛) 해양투기구역에 대한 사용을 계속 금지하는 동시에 자오저우완(胶州湾) 외의 Ⅲ류 준설물(구 국가해양국 고시 '준설물 해상투기 분류 기준 및 평가절차에 의한 분류) 투기구역을 사용금지 리스트에 추가했음

■ 해양투기구역 주요 분포 상황

- 중국에서 해양 투기물은 주로 준설물, 골회(骨灰), 폐기물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2021년 중국 전국범위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해양투기구 중에 준설물 투기구역 73개가 있는데, 이는 동해구역(37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남해구역(21개)은 두 번째로 많은 구역임. 또한, 그 가운데 임시 투기구역 44개가 포함돼 있음
- 골회 투기구역은 3개가 있는데, 각각 산둥 칭다오(青岛), 르자오(日照) 및 상하이 창장커우(임시)에 분포돼 있음
- 폐기물 투기구역은 1개가 있고 이는 남해의 Ⅲ류 폐기물 투기구역임



(生态环境部, 2021. 3. 13.)

<https://mp.weixin.qq.com/s/1pWskVS-KPpvd0NBLz4TCA>

## 산둥 옌타이(烟台), 중국 해양경제 대도시 건설에 주력

- 산둥 옌타이시는 해양어업, 해양플랜트제조업, 해양바이오의약업 등을 경제발전을 이끄는 '블루 엔진'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해양경제 대도시로 건설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옌타이시 해양발전어업국은 2025년까지 해양경제 총생산액 목표치를 2,500억 위안으로 설정하고, '14·5' 기간 옌타이시 해양경제 발전을 품질효익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함
- 옌타이시의 해양산업 발전 상황
  - 옌타이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특색 있는 해양목장을 개발하여 각 유형의 해양목장 면적이 110만 묘에 달했고, 관련 산업체인의 생산액이 500억 위안을 초과했음. 또한, 4개 해양목장 발전벨트를 구축했고, 아시아 최대의 해양목장 건설사업인 '바이샹(百箱)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이와 더불어 '창징(长鲸)1호'등 일련의 현대화 해양목장 종합 시범사업이 이미 운영에 들어갔음
  - 해양플랜트제조업의 육성은 옌타이시 해양산업 발전의 중점이 될 것임. 옌타이시의 선박·해양플랜트 기지는 세계 4대 심해반잠수식플랫폼 건조기지 중 하나로 또한 중국 전국 5대 해양플랜트 건조기지 중 하나가 되었음. 현재 중국 국내에서 교부된 80%의 반잠입식 드릴링 플랫폼이 옌타이에서 건조된 것임
  - 해양바이오의약산업의 발전은 옌타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주었음. 옌타이시는 일련의 바이오의약 기업을 육성했고, 현재 연구개발 중인 새로운 해양바이오 의약품 종류는 10개가 있음. 또한, 옌타이시의 바이오의약산업클러스터는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클러스터로 포함시켰음
  - 해양교통운수업은 급속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옌타이항은 중국 국내 다섯 번째로 큰 물류 무역항이며, 2025년까지 옌타이시의 항만물동량은 5억 톤을 초과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400만 TEU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옌타이시는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상'의 '녹수청산' 건설을 모색하고 있음
  - 해양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매년 '증식·방류'하는 수산 종묘는 10억 마리에 달했고 생태 어업 생산액은 100억 위안을 넘었음
  - 산둥자유무역시범구의 옌타이 구역은 전국에서 최초 '정부·기업·사회·연구기관'의 합동 '증식·방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음. 이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수호 및 해양목장 건설을 위한 양호한 기반을 마련했음

(中国网, 2021. 3. 26.)

<http://www.nmdis.org.cn/c/2021-03-26/74298.shtml>